

제 14강 제국과 코뮤니즘

◆1교시: 제국과 코뮤니즘 1

▲도입 - 마지막 강의 주제

원래 제가 지난번에 예고를 하기로는 일단 제국과 관련된 주변의 어떤 다른 입장들의 평가들, 또 제국이라고 하는 책에 국제적인 파급 효과 이거를 다룰 것이라고 했는데,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일단 그 첫 번째 테마는, 다시 말해서 제국을 둘러싼 논쟁이랄까요, 그 논쟁들에 대한 특히 네그리와 하트에 반비판의 경우에는 이 다중의 한 챕터를 구성하고 있어가지고, 미리 그걸 다룰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2장 3부에 보면은 그 반비판, 논쟁적 반비판이 실제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중을 하면서 다루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결국 그 얘기가 국제적인 파급효과에 연관돼있기 때문에, 제국하고 다중 전체를 한 후에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사유들이 현재의 국제적 혹은 전지구적 차원의 좌파, 혹은 새로운 사회운동에 이론적 실천적인 맥락 속에서 어떤 위치를 갖고 있는지를 별도로 다루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 제가 준비한게 한겨레신문 기고문인데요. 그게 코뮤니즘을 둘러싼 논쟁입니다. 코뮤니즘을 둘러싼 논쟁이 맑스의 선언, 공산주의자 선언 나온게 1848년이라서 지금이 정확하게 160년이 지난해거든요. 이거를 기점으로 수유너머에서 재작년인가요? 재작년 말인가, 그때 했던 강의를 단행본으로 또 만들어냈죠. 코뮤니즘 선언이라고 해가지고. 그러한 기회도 있고 해서, 지금 코뮤니즘이라고 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둘러싼 다양한 입장들이 이제 제시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제국을 둘러싼 논의의 실천적 핵심은 이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게 한편에서는 지난번, 지지난번인가 2005년도에 맑스코뮤날레에서의 주제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편의 자료를 실었는데, 지금 맨 앞에 꺼는 제가 쓴 거고요. 그 그음에 코뮌주의를 실현하라고 그 뒤에 실려 있는 생태적 문화사회를 향한 코뮌주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수유의 고병권씨하고 문화과학의 심광현씨가 쓴 글을 참고자료로 부착을 했는데, 이거를 준비를 하다보니까 제국론을 요 방향에서 정리하는게 다중하고의 연계성 면이라거나 혹은 제국 논의에 실천적인 함의를 우리가 생각함에 있어서 유의하겠다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 이것을 마지막 강의에 주제로 제시하려고 했습니다.

▲용어 정리

우선 여기 용어에 대해 기자가 저한테 메일을 보내서 질문을 한바가 있는데 그것을 먼저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거 같아요. 지금 영어로 쓰면은 communism 이렇게 쓰는 건데,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공산주의라 하는 거는 다 대문자로 씁니다. 전부라고 할 수 없지만 대부분 대문자 Communism이죠. 이게 공산당선언 에스페란토 판입니다. 에스페란토 판인데, 공산당선언은 굉장히 다양한 판으로 번역이 됐는데 여기에서도 물론 코뮤니스트라고 하는 건 대문자로 쓰여져 있고, 에스페란토 Esperanto 란 글자도 E자를 대문자로 쓰잖아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라는건 대문자인 코뮤니즘하고 그렇지 않은 코뮤니즘과의 차이라고 해도

종겠고 (Communism-communism), 이 코뮌리즘 내부에서의 다양한 해석 경향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원래 어원적으로 보게 되면, 라틴어에서 communis라고 하는 단어가 13세기에 프랑스어로 들어가서 commune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루는데 지금 이때, e는 실제로는 안 붙어있어요. 13세기 당시에는, commun(e) 그니까 communis라고 하는 것은 e가 붙은 commune하고는 달리 원래는 없고, 요거는 e가 안 붙으면 발음이 코뮌이 되는게 아니고 코멍이 됩니다. 그러니까 e자가 붙어야 코뮌이 되는 거죠. 코뮌이라고 하는 뜻으로서 실제로 우리가 영어에서 볼 수 있는 코뮌common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니까 라틴어에 communis 뜻을 찾아보면 뜻이 common이라고 나오거든요. common, '공통의'라는 뜻이에요. 이게 인제 13세기 정도에 나타났는데 이거를 전후에서 이 코뮌을 표현하는 유럽적인 현상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지금 그 중에 하나가 commons라고 하는 겁니다. 이 s자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 common는 공동 영유지를 얘기합니다. 공유지라고 흔히 번역이 되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중세 공동체들을 보면 공유지가 있고 그 공유지 주변에 이렇게 인제 개인 영토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기네 밭에서 자기네 땅에서 3일을 일하고 여기에서 한 3일을 일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유지를 같이 경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경작 방식은 이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니까 이런 유형의, 여하튼 공유지라는 의미에서 commons, 영어로 하면은 (the) commons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중세에는 이제 코뮌commune이라는 것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코멍commun이 표현되는 일종의 자치공동체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중세 코뮌인데요. 이때는 코뮌이라고 발음을 해줘야죠. e가 붙으니까. 이 중세 코뮌들은 예를 들어서 농업 쪽에도 있고 수공업 쪽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수공업 쪽의 코뮌들은 길드라는 것하고 아주 깊게 연결되는 그런 경향을 많이 보였었어요. 근데 나중에 인제 지금 이 코뮌이라고 하는 것이 1870년에 그 파리에서 혁명정부의 모습으로 나타났었죠. 그것도 인제 코뮌이라고 썼는데, 파리 코뮌이라고. 이 코뮌은 이 소위 작은 공동체로서의 코뮌하고는 달리, 일종의 혁명정부, 자치정부로서의 성격을 띠었습니다. 상당히 다른 거죠. 중세 코뮌이 이렇게 전환된 것은.

근데 지금 우리가 제국이나 다중에서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용어가 the commun이라는 용어인데요. 이거 (the) commons 하고 혼돈되죠. 더 코뮌 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차이가 나는 건 s자가 없는 겁니다. 복수 s자가 빠져있는 것인데, s자가 있느냐 없느냐는 그냥 우연히 활자화되는 것이 아니고 이 필자들이 의식적으로 구분하고 있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공유지가 아니라 공통된 것. 즉 코멍commun. 여기서 말한 코멍commun을 명사적인 것으로 바꾸기 위한 것이죠. the + 형용사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공통된 것, 공통적인 것,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그리나 하트에게서 코뮌리즘communism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식으로 보면 commonism이죠 사실상. 왜냐면 영어에선 commun이라는 말이 원래 없었고 프랑스에서 들어온 말이기 때문에, 영어에서는 common이거든요. commonism하고 같은 것이면서 the common이라고 하는 공통된 것을 현실화시키는 그러한 일종의 정치적인 운동, 정치적인 어떤 노력들 - 그거를 지칭하게 되죠. 근데 the common이라고 하는 거는 좀 이따가 이야기하게 되겠지만, 자본주의 속에 이미 the common이라고 하는게 계속 내재적으로 발전되고, 성장해나가는 그런 힘으로 있습니다. 근데 communism은 그거를 바꿔야 되는 것이죠. the common은 잠재적인 것으로 존재하지만 현실적인 것으로 바꾸려는 운동이 이 ism이 붙은 communism이 되는 거죠.

▲코뮌주의와 코뮌니즘(commun-ism)

그런데 인제 수유에서 사용하고 있는, 코뮌주의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쓸 때에는, 책 표지에는 commun-ism, 하이픈이 들어가있는 것이기 때문에 communism 이란 말하고는 상당히 다른 거죠. 근데 이 지금 이거를 코뮌으로 했을 때는, 이거를 코뮌으로 읽는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코뮌으로, 이게 (e)가 빠지면서 ism으로 붙은 걸로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코뮌이라고 하는 것을 일종의 공동체로 해석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코뮌이 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 가깝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작은 공동체로서의 코뮌하고, 자치정부(혁명정부)에서의 코뮌 중에서 - 이 commun-ism이 지향하는 것. 그것은 자치정부로서의 코뮌보다는 이 공동체로서의 코뮌에 더 가까워요. 이 점에서 이 코뮌commun에 대한 해석이 이 공통된 것으로 해석되는가, 아니면 작은 공동체로 해석되는가에 이해 방식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점에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문화과학에 경우에는 이 그냥 communism이라는 용어를 코뮌주의라고 읽자라고 하는 것인데, 저것을 코뮌주의로 읽을 때에 하이픈을 넣지 않는 방식으로 이 코뮌이라고 하는 것을 공동체로 읽는 방식이 이미 글 속에서 드러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코뮌들, 사회적 공공성, 국가 - 심광현 선생의 경우엔 여러 편의 글에서 이것들이 9개의 매트릭스로 바뀌는데요. 크게 보면, 환원시켜 보면은 맨 위에 국가가 있고, 그 아래에 사회적 공공성-비국가적 공공성이라고 불리는 사회적 공공성이 있고 그 아래에 다양한 코뮌들의 실험이 있는 그런 3층 구조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코뮌들이, 코뮌들의 실험이 국가를 민주화 시켜가지고 사회적 공공성으로 내려오게 만드는, 그래서 다시 코뮌들로 그 성과가 귀속되는 - 이런 인제 코뮌에서 국가, 국가에서 코뮌들로, 그거에 중간 길로 사회적 공공성이 있는 이런 선순환 구조로 생각하거든요. 뽕뽕이가 있는 선순환 구조. 그러니 코뮌들은 뭐냐면은, 글에서 나타나지만 결국 과거의 중세라고 볼 수 없지만, 현대에 있어서 이 작은 공동체들, 다양한 자율적이고 자립적인 공동체들의 운동들, 이거를 염두 해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심광현 선생이 이야기하는 코뮌들하고 수유너머에서 이야기하는 이 하이픈 친 코뮌하고는 차이가 없어요.

다만 강조점이 다릅니다. 그니까 수유너머는 이 작은 공동체의 그 실험들에 무엇보다도 인제 강한 강조점을 두고 이것을 중심에 놓고 사고를 함에 반해서, 문화과학에 경우에는 미드필드, 사회적 공동체를 중심에 놓고 생각 하는 것이죠. 이게 중심에 있으면서 국가도 견제를 하고, 이게 따지고 보면 NGO죠, 사실상. 이 국가를 민주화하고 그래서 이 코뮌들의 운동을 갖다가 보조해주고 이렇게 되는 단계. 중심에 이것이 놓여가지고 이게 인제 이 아래로 매개역할을 해주는 그런 관계. 그거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토의자체가 중간에 가 있습니다. 이게 문화과학에서는 문화연대로 나타나는 것이죠. NGO로서의 문화연대 운동으로.

▲질문1)

질문) 국가를 민주화 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심오한 말이겠죠(웃음). 그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니까 국가를 민주화한다는 말은 맑스가 썼던 말인데, 공산당 선언의 말미에 나오는 내용인데 ‘국가를 민주화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근데 맑스는 코뮌들과는 달리 프롤레타리아트, 프롤레타리아트가 국가 권력을 장악을 해가지고, 장악을 해서, 이 장악을 하면은 장악을 할 필요성은 부르주아들이 아직도 민족국가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완성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프롤레타리아트의 과제로 되어서 프롤레타리아트가 무엇보다 먼저 민족적 계급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인제 local에서 national로, national에서 global로의 그런 이행에 대해 얘기했는데, 일단 맑스가 공산당 선언을 쓸 1848년 당시에는 프롤레타리아트가 national class로 올라서야 한다고 말을 해요. 민족적 계급으로. 혹은 국민적 계급으로. 그것의 수단이 먼저 국가권력 장악으로 나타납니다. 프롤레타리아트가 국가권력을 장악해서, 국민적 계급으로 끌어올리고 나서, 바로 이것을 지렛대로 해가지고 국가가 프롤레타리아트의 이익에 맞게끔 사용어나가는, 그것을 국가민주화라고 맑스는 명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민주화라고 하는 말은, democratization 정도 되겠죠.

democracy의 문제인데, 이 demo라고 하는 게 민중이란 뜻이죠. 다수의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니까. crat, cracy라고 하는 건 '지배하다'라는 뜻이죠. 민중지배, 민중권력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대체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국가권력을 장악해서 국가를 민중을 위해서 사용 한다-하는 말이 되는데, 지금 맑스의 사유발전 단계에서 보면은 48년하고 71년 사이에 커다란 거리가 나타나죠. 그래서 71년에는 바로 이 국가민주화 계획이 전혀 현실에 맞지 않음을 인정하고 자기비판하거든요. 이게 공산당 선언의 1872년 독일어판 서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코뮌이 패배한 1년 뒤에 짚은 것이죠. 72년판 독일어판 서문에 보면은, 자기가 공산당 선언 뒷부분에서 했던 10가지 정도의 전략적 과제 중에서, 바로 현존하는 국가권력을 장악해서 그걸 갖다가 프롤레타리아트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은 이제는 낡아서 더 이상 유효성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민주화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맑스에 의해서는 이미 폐기된 거죠. 맑스에 의해서 폐기되기 전에 그걸 폐기시키게 만든 역사적 사건이 바로 71년에 코뮌이었던 거죠. 코뮌의 등장은 국가민주화라고 하는게 현존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오직 국가에 대한 파괴, 현존하는 국가의 파괴와 새로운 국가의 창립, 그게 인제 코뮌으로 나타나는데, 코뮌은 기존 국가 권력을 장악하는 산물이 아니거든요. 새로운 국가권력을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걸, 맑스는 목적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 코뮌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국가라는 과정에서 보면은 국가 아닌 국가, 1/2국가, semi국가, 반국가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일 뿐이고, 그니까 사라져가는 국가라는 것. 사멸해 가는 국가. 그래서 엥겔스에서 국가사멸론도 바로 이런 이제, semi라는 말의 다른 해석 방법이죠. 점점 반반반반.... 소위 뭉니까. 방사능 그게 증감되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없어져 가는 겁니다. 그니까 국가민주화라는 말은 둥근 사각형이라거나 이런 말처럼 지금 우리가 보게 되면, 사실상 형용모순에 가깝죠.

그럼 인제 문화과학에서 봤을 때, 국가민주화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국가수중에 집중돼 있는 그러한 권력을 NGO가 분배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본다면. NGO들 - 비국가적인 그런 제도조직들이 국가의 권력에 일부를 분점해 갖는 그런 형태. 그게 국가권력이 국가적 공공성의 코뮌적 전화라고 부르는데, 이 국가권력 코뮌적 전화의 과정이 사회적 공공성의 강화라는 것으로 비국가적 공공성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코뮌들도 우리가 NGO하고 좀 식별되기 어려운 방식으로 움직이잖아요. 사실상 보면은. NGO하고 코뮌들, 작은 공공성하고 코뮌들은 경계성이 명료하지가 않아요. 반핵운동을 하는 단체들이라거나, 에이즈

운동 단체라거나 이것들 보면은 그 나름대로 하나의 공동체하고 유사하죠. 그러기 때문에 일단 의미로 보면, 국가권력의 비국가적인 공공화, 이런 것을 의미한다라고 우리는 새겨둘 수는 있겠죠. 근데 정확하게 국가하고 민주, 이런 두 개의 용어를 개념적으로 철학적 엄밀성을 가지고 분석해보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에 발본적인 개념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민주주의를 절대적인 것으로 이해할 때, 그건 국가하고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인 거죠. 그래서 둥근 사각형하고 같다라는 겁니다. 둥그리지던지 사각형이 되던지여야지, 고것들은 모순 관계인거죠.

▲질문2-1)

질문) 수유너머는 코뮌을 강조한다는데, 수유너머 입장은 코뮌들의 연합을 만들어 가가지고서는 국가를 대체한다는 말입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그거를 부르는 이름이, 인터코뮌넷이라고 부릅니다. 그니까 코뮌들의 상호네트워크킹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코뮌들이 다양하게 생겨가지고 이것들에 네트워크를 통하게 되면, 국가라고 하는 것은 필요가 없어지고 사라지게 되지 않겠냐. 근데 비국가적인 공공성은 여기서도 인정은 해요. 수유는 이 비국가적 공공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국가 없는 이 2층 구조 속에서 어떤 순환구조를 만들어가려고 시도할 것 같은데요. 지금 자기들이 주장한 것은 아니니까 논리적인 결론을 밀고나가 보면, 그런 정치적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질문2-2)

질문) 그럼 그거는 무정부주의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니까 아나키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Anarchism이라고 하는 게, 여기는 정부라고 하는 말을 갖고 있는 뜻은 없어요. 우리말로 번역해서 이걸 무정부주의라고 번역하는 건데, A자는 없다라는 뜻이고, + narch라고 하는건 지도자를 뜻하는데, 지도자가 없는 주의라고 하는 뜻입니다. 원래가 정부가 없는 뜻을 말하는게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이 아나키즘에 논리를 밀고나가 보면, 일체의 어떤 위계성에 대한 거부로 나타나는 거고, 다만 이제 현존사회에서 근대성 속에서 이 위계성의 그 주된 담당자, 위기의 구조를 내적으로 요구하고 밀고나가는 그런 핵심적인 기구가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거부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국가라는 말하고 정부라는 말은 상당히 또 다른 거죠. 국가 권력은 그대로 있어도, 정부가 달라지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잖아요. government하고 state는 전혀 다른 거죠. state가 훨씬 더 광범위한 용어이고, government가 더 좁은 용어인데 철학적으로는 거꾸로입니다. govern한다고 하는 것이 아주 광범위한 용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혼란스럽게 좀 설명이 됐는데, 무슨무슨 정부할 때 이 정부의 정부적 형태 있잖아요. 정부적 형태라고 하는 것은 국가보다 훨씬 더 좁은 거죠. 국가 속에서 어떤 행정적 부서, 그거를 지칭하게 되는데. govern, 무언가를 지배한다, 통치한다. - 이것은 국가보다 더 넓은 것이라는 것. 국가가 없어도 govern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govern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근데 왜 그렇게 말하냐면 autonomy에서 이 nomy라고 하는 거는 govern의 뜻이기도 하거든요. 통치라는 의미,

자기 통치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니까. 그런 성격을 갖는 건데 어쨌건 다시 여기로 돌려보면, 국가나 정부에 대한 반대라고 하는 건, 이 위계성에 대한 반대, 지도 관계에 대한 반대를 일단 함축하는 것이죠. 그럼 인제 여기서 한번 보게 되면 문제가 인제 일대일 대응관계로 정확하게 매치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다소 어렵다고 할 수 있겠는데, 지금 이 코뮌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코뮌들은, 수유의 관점에서 보면 그 내부에 지도자를 갖고 있습니다.

▲촉발과 전염

mass 하고 commune의 구조로 돼있는데요. 이 이원성을 유지합니다. 대중과 코뮌. 코뮌 위에는 어떻게 보면 또, 혁명가라는게 있습니다. 근데 이 어떻게 보면 3자관계이고 좁게 보면 2자관계이죠. 그러니까 commune은 mass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갖느냐하면은, 예전의 코뮤니스트-혁명가들은 대중에 대해서 분리된 전위로서 기능을 했어요. 그러니까 mass 조직이 있으면 직업적 혁명가-레닌주의에서-, 그건 겹쳐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겹치는 부분이 유기적인 지식인들이죠. 대중 속에서 나와 가지고 전위가 된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죠. 주로 노동자, 농민 이런 사람들로 구성 돼있고, 전위 층은 지식인들로 구성돼요. 과학자들로. 이게 인제 대중조직과 전위조직의 고전적인 기획 방법인데, 수유에서는 mass속에 commune으로 상정하는 거죠. 그래서 communist-혁명가는 대중 속에 있으면서 코뮌을 이끌어 나가는 여기에 인제 자극을 가해나가거나 그러한 종자들이죠. 그러면은 코뮤니스트들과 코뮌에 대중에 대한 촉발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코뮌들이 계속 대중 속에서 많이 번식할 수 있도록 촉발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들뢰즈적인 용어에서의 전염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근데 촉발하고 전염은 사실 전혀 다른 말이거든요. 두 개는 혼동되기 힘들어요. 촉발은 루카치주의에 용어입니다, 사실은. 전염은 들뢰즈의 용어이죠.

근데 전염보다는 촉발에 더 강조점을 두는 방식으로 지금의 코뮌-주의는 구성이 되는데, 왜 이거는 루카치주의적인 용어인가 하면은 루카치주의에는 칸트의 물자체(Ding an sich)를 해명을 하면서, 이 물자체라고 하는 게, 구성적인 오성들에 대해서 물자체는 인식을 통해서 접근할 수는 없지만 끊임없이 오성적 구성이 일어나도록 촉발하는 작용을 한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힘은 여기서부터 올라오는 거죠, 사실상. 근데 루카치는 물자체가 오성을 촉발한다고 봤는데 - 지금 물자체를 대중이라고 보고, 오성을 코뮤니스트라고 보면 방향이 거꾸로 돼있습니다. 오성이 물자체를 설정하는 것으로 설정이 돼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루카치의 유물론적 측면이 바로 물자체(Ding an sich)이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칸트의 철학체계를 반유물론으로 해석을 했는데, 루카치는 칸트에게 유물론이 있다고 봤고, 그게 바로 물자체(Ding an sich)가 구성적 오성에 대해서 수행하는 촉발기능에 찾아서요. 이 물질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오성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게 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한다고 봤던 거죠. 근데 어쨌건 이 촉발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향적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하나가 다른 것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식에 관계이고, 전염은 그게 아닙니다. 막 다방향적인 것이죠. 무리적인 것, 뒤섞이는 것, 그래서 출발점이 도대체 어딘지 알 수 없는 것. 그런 것을 우리는 전염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여하튼 촉발이나 전염을 그런 내적으로도 구분하더라도 비슷하게 받아들여서 일단 요것의 위치는 확대효과, 그거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부에서는 코뮌리스트로부터 코뮌으로, 코뮌에서 대중으로 흘러가는 에너지의 전파 - 이게 존재하고 그런 의미에서는 아나키즘이라고 부를 수가 없죠. 이 내적 구조로 보면은 상당히 아나키즘이 지도자성이 작동하고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연해진 뱅가디즘vanguardism이라고 환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전체 구조에서 보면은, 만약에 아까 문화과학 3층 구조에서 보면, 일단 국가를 제일 핵심적인 그 위계의 정점에 있는, 이 부분을 떼어 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측면으로 보면은 아나키즘이죠. 이것(국가)을 제거하려는 측면은 아나키즘인데, 이것을 제거하고 나서 이 속에서 새롭게 구성하려고 하는 목적의 측면에서 보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

▲질문2-3)

질문) 코뮌들의 연합이라는 것도 아나키즘적인 거 아닌가요? 아나키스트들도 그런 얘기 하지 않나요?

그니까 아나키스트가 원래 다양해서요, 사실 아나키즘을 하나의 어떤 요렇게 행하고 있다고 하는 실행의 측면에서 단일화할 수는 없습니다. 엄청나게 분포가 넓기 때문에, 코뮌을 아나키즘의 한 역사적 형태로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고 코뮌이야말로 정부적인 것, 권력적인 것, 그 속의 위계성을 함축하고 있는 그런 역사적 조직형태로 보는 아나키즘도 있고, 다양하죠. 근데 역사적 코뮌이라고 하는 거, 지금 이 자치정부로서의 코뮌을 보면은 두 말이 다 맞습니다. 그니까 현존하는 국가권력과 관계에서 보면 집중성을 파괴했죠. 그러나 파리코뮌 그 자체는 중앙집권정부이거든요. 그래서 아래로부터 권력들이 차곡 차곡 모여가지고 텔리게이트들이 중앙에 모여서 의회를 구성해가지고, 여기서 입법, 사법, 행정에 모든 통치기능을 다 수행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집중정부이죠. 대의적 정부이고 집중정부입니다. 그 측면에서는 역시 아나키즘하고는 대립되는, 원리적인 것과는 대립되는 요소를 코뮌은 갖고 있다.

◆2교시: 제국과 코뮌리즘 2

▲수유, 문화과학, 평의회의 코뮌리즘

지금 우리가 오늘 얘기하려는 것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코뮌들이 있고 사회적 공공성이 있고 국가가 있다고 했을 때, 문화과학은 이 3층 구조를 인정하고, 수유너머는 대체로 2층 구조를 인정하면서 강조점을 코뮌들에 두는 경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역사적 형태로서의 코뮌이라는 것 하고, the common 하고 commune이라고 봐도 좋겠어요. 이 두 개는 역사적으로 나타나는 중세적인 것, 근대적인 것이니까. 이 common하고 commune을 분별하고 이것의 차이를 명확하게 하면서, communism을 역사적인 공동체 형태로서 commune이 아니라 자본주의 속에서 생성되고 있는 common에 기초 지으려고 하는 것. 그럴 때는 communism관이 지금 이런 것들과는 판이해진다는 것이죠. 어떤 차이가 나타나냐면은 이 코뮌들이나 사회적 공공성이나 국가, 이 2층이나 3층 구조 속에 나타나지 않는 그 밑의 영역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안 나타나 있죠. 프롤레타리아트라고 해도 좋겠는데, 우리가 지금 multitude라고 부르는 것. 그니까 이거는 아마도 코뮌들하고 겹쳐지기는 할 거예요. 그렇지만 다중이 코뮌들로 나타나느냐하면 안 그렇거든요. 코뮌들로 나타나는 multitude들은 그냥 그것들의 하나의 특정한 여러 표현형태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이죠. 그니까 이 아래에 엄청난 빙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3층 구조를 떠받치고 있는. 이것들(3층 구조)은 이 빙산 속에 표면에 들어간 그 일종의 뿌리죠. 일각이라는 거죠. 이게 인제 이 글에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common의 자리, the common의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중세의 commons나 중세의 commune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일단. 이거는 일종의 자연적 공동체에 더 가깝거든요. 자연적으로 진화해온. 그래서 그것은 자본주의 하에서 형성되는 코뮌들과는 달리 팽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the common은 전적으로 자본주의의 산물입니다. 자본주의 속에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 이 때(the commons, 중세 commune)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설령 유사성을 갖고 있고, 계통적인 연속성을 갖는다 하더라도 질적으로 판이하게 다른 거란 말이죠. the commons나 중세 commune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럼 자치정부 때 commune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하는 문제일텐데요. 이 commune은 자본주의에서 형성된 the common의 정치적인 발현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들과는 달리 그 내부에 부르주아 사회에서 형성되어온 프롤레타리아트의 puissance, 힘들의 결집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코뮌은 좀 전에 우리가 아나키즘과 코뮌의 차이를 이야기하면서 언급한 것처럼 그 내부에 인제 중앙집권성, 강한 대의성-이 대의의 특징은 구속된 대의제라고 부르는데, 이건 나중에 다중을 할 때 대의의 3형태를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막스 베버가 불렀던 건데요. 구속된 대의제라 불렀는데, 구속된 대의제를 기초해서 이루어진 delegate들의 중앙집권 권력으로서 코뮌은 나타나요. 20세기에도 이게 타당하냐, 이걸 복사하려고 하는게 맞느냐, 이거는 우리 시대에는 이 형태를 복사하려는 노력은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문제가 이 코뮌 개념에 부적절성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논의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수유나 문화과학은 여기에 기초하고 있지 않으니깐요. 그냥 commune들, 공동체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자치정부를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치적인 혁명정부, 이거를 지칭 하는게 아니라 어떤 코뮌리티들, 우리가 흔히 커뮤니티라고 부르는 것을 염두해둔 그 communism이 이 코뮌들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별하게 논의할 필요가 없고, 이 부분이

코뮤니즘에서 쟁점이 되는 지점은 평의회 공산주의하고의 관계였습니다. 그니까 counsel communist들은 공동체 commune이 아니라 자치정부 commune를 대안으로 내세우고, 파리 코뮌 당시에 코뮌이라고 불리는 특수한 정부형태를 지금 우리 시대에 재현시키는 것 - 이것을 정치적 목표로 삼기 때문에, 평의회 코뮤니스트들하고 논쟁을 할 때에는 이것을 비판해야 되요. 근데 지금 이 자리, 수유나 문화과학하고 논쟁할 땐 이게 필요가 없습니다.

▲자본관계 협력관계

다시 한 번 이제, 이 코뮌이 어떤 방식으로 이 상층의 외부에, 겹치는 외부에 실재하는가를 밝혀야 되는데, 지금 그 글에서는 아주 압축적으로 지문이 한정되기 때문에 압축적으로 써서 글만 읽어서는 이해하기 힘들 텐데요.

맑스의 자본론이나, 모든 저작에서는 요 이원성이 나타나요. 동시적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노동은 역사의 추진력인데 노동은 그 잠재적 구조에서 보면 항상 협력이죠. 그 말이 무슨 말이나면 로빈슨 크루소적인 노동이라고 하는 건 논리적 가능성으로 있지만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을 한 것처럼. 로빈슨 크루소 사회에서는 노동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두 사람 이상이 되는, 어쨌건 협력관계, 이 협력관계 속에서 노동이 전개되는데, 이 노동은 항상 자본관계 속에 포위돼 있잖아요. 이 포획의 맑스 시대에 어쨌, 그건 착취였죠. 물론 착취하고 포획은 개념적으로 다릅니다만. 넓은 의미에서 포획이 착취의 방식으로, 타인 노동 시간의 이용이라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부르는 것들을 보면 예컨대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이런 거는 사회적 노동 - 이 사회적 노동이 자본관계에서 나타난 것이 추상노동이거든요. 모든 노동들의 합으로서 양적 합산으로 나타납니다. 그니까 현존하는 자본주의적 사회의 밑바닥에서 움직이는 힘들의 그 노동력들의 운동. 그 사용가치의 발현과정을 총합했을 때 그 구체적인 유용성, 사용성을 떠나가지고 양적으로 합산되는 전체 - 이게 추상노동이죠.

자본관계 - 교환가치 - 추상노동
노동
협력관계 - 사용가치 - 사회적노동

추상이라고 하는건 그냥 구체적이지 않다가 아닙니다. 않다가 아니고 이 유용성을 떼어내는 거죠. abstract라고 하는 거는 a로부터 b를 분리시켜내는 것이거든요. 이 ab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에서는 분리시킨다는 말을 갖고 있죠. 전복. stract 그니까 분리시키고 꼬집어내는 걸 abstract라고 하는 거죠. 그니까 이거는 논리적인 추상작용은 현실에서 이렇게 우리가 하는 abstract, 뭐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추상해낸다거나 분리시켜낸다거나, 우리들의 추상활동은 엄청나게 많죠. 그런 인제 현실에서의 추상작용의 개념적 반형태로서 나타나는 건데, 사회적 노동을 자본의 입장에서 보면 추상노동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방식의 이 이원성이 맑스의 논리계에선 계속돼나가죠. 이게 사라지는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주식회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게 프롤레타리아트의 연합, 집합이라고 할까요? 집합을 주식회사로 보는 거죠. 주식회사라고 보는 것은 자본의 사회주의다. 그렇게 맑스·엥겔스는 부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이원계열이 한없이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하면 자본관계라고 하는게 바로 협력관계의 표현이라는 거. 자본관계가 협력관계를 감싸가지고 그것에 빨판을 박아서 흡혈을 하고 있다라는 - 이게 인제 비대칭적인 이원관계로 계속이 되는 것이죠. 지금 요 부분(협력관계)이 거의 맑스주의 전통 속에서는 괄호쳐져있습니다. 요 부분이 사라지고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간헐적으로, 우연적으로만 등장할 뿐이지 어떤 필연적인 계기를 갖지 못하고 은폐되어 있는 상태이죠.

▲협력관계의 이 대칭성, 자본관계와 협력관계의 비대칭적 동시발전

근데 바로 이 협력관계의 이 대칭성, 자본관계와 협력관계의 비대칭적 동시발전이라고 부르시다. 비대칭적 동시발전의 맥락에서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추상노동 속에서 사회적노동을 읽을 수 있고 주식회사 속에서 사회주의를 읽을 수 있고. 예컨대 다시 이 이원을 가져오면, 금융자본 속에서 특히 초국적 금융자본 속에서 자본의 코뮤니즘을 읽을 수 있는 거죠. 이 코뮤니즘이 자본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 - 이게 금융자본이라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금융자본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자본들이 공통된 것이거든요. 전부 다 화폐화 돼가지고 그게 항상 금융자본을 경유해서 모든 자본들이 이동되기 때문에, 금융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의 공통성이죠. 금융자본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데, 이거는 달리 보면 바로 이 노동의 공통되기 - 노동의 공통되기와 비대칭적 동시성으로, 비대칭적이지만 동시적으로 발전해가고 있는 산물이고, 바로 노동의 공통되기 때문에 자본은 자신을 공통되도록 만들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겁니다. 그니까 이것은 공통성, 공통적인 관계들인데, 협력관계들인데, 바로 이것을 착취하기 위해서는 분산돼있을 수가 없고, 협력을 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자본 내부의 그 개별성을 넘어서는 local하든 national하든 간에 그런 것들을 뛰어 넘는 글로벌한 규제를 행사해야만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노동의 공통되기에 대해서 예컨대 비물질노동, 이런 개념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물질노동 개념에서 보면은 많은 노동들은 기술적으로 보면은 디지털로 공통되죠. 전부 컴퓨터로 연결돼서 코뮤날라이즈communalize되는... 그 다음에 그것의 사회적 작동양식에서 보면은 코뮤니케이션 관계로 돼 있죠. 소통적인 것으로 공통되는. 바로 이러한 노동의 공통되기가 오늘날 우리는 정치적 지배형태로서의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을 촉발시켰다고 말을 했죠. 68혁명은 신자유주의를 촉발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죠. 그러면 신자유주의라 하는 거는 결국 그 자체가 아래에 코뮤니즘을 포획하기 위한 자본의 재구성 방식이죠. 그러면서 신자유주의는 바로 어떤 반혁명적인 코뮤니즘, 코뮤니즘은 코뮤니즘인데 이게 자본의 코뮤니즘이고 이 바로 노동의 공통되기에 혁명적 과정을 역전시키는, 그렇다고 혁명을 안 한다는게 아니고 혁명을 하는데, 자본의 입장에서 혁명해 나가는 것이죠. 그런게 바로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비물질노동, 노동의 공통되기가 들어나는 형상들, 요거는 사실은 발견해야 될 대상으로 남아있습니다. 과거의 코뮌상에 따라서 공동체들 속에만, 혹은 그것을 중심으로 이 아래로부터의 협력관계, 공통되기가 표현되고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공동체들만 들여다보게 되면, 이 공통되기의 상당부분을 놓친다는 거죠. 예컨대 피스몐(Peace Mob)이라거나 이 몸운동 같은걸 보면은 코뮌이 없잖아요. 서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고 한번 모였다가 사라져버리거든요. 그러면 코뮌이 아니죠, 그건. 코뮌은 아니지만 이 공통되기가 정치적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우리시대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니겠죠. 우리는 무수한 사례들을 언급할 수 있는데, 예컨대 대항지구화부터가 그렇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시애틀의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집결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코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공통의 적을 놓고 싸우는 것이죠.

▲협력관계가 표현되는 정치적인 형태들의 다양성, 혼존성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는 오늘날의 이 협력관계가 표현되는 정치적인 형태들의 다양성, 이 다양성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또 혼존성. 뒤섞임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 아주 다양하면서도 또 그것들이 뒤섞이고 교차하고 때로는 서로 대립하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터코문에서는 코문들이 이 수평적으로 나타나고 그것들이 보기 좋게 연합하는 현상을 반영하겠지만, 우리가 코뮤니즘을 생각해 보면, 이 다양성이나 혼존성 때문에 그렇게 평화롭게, 어떤 공통되기를 표현하는 정치적 형태들이 스무스하게 이렇게 연합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실재하는 노동의 공통되기. 자본주의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이 협력관계, 이 공통되기를 어떻게 액추얼한 것으로 전환시킬 것이냐-하는 문제를 배제하는 그런 코뮤니즘관. 그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떤 문제가 있느냐.

수유의 경우(commun-ism)에는 바로 이 실재성을 좀 주어진, 그래서 보면은 자격이라거나 소속이라거나 근거라거나 이런 것 없는 - 이라고 함으로서 이건 정체성의 이름들인데 이것을 없게 하기 위해서 그 안에 떠받쳐주고 있는 실재적인 공통 근거- 이 자체를 부정하는 경향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래에서의 요 부분을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코뮤니즘의 문제는 실현의 문제였다. 해보는 거죠, 그냥. 해보는 것으로 되는 것이죠.

반면 문화과학의 경우에는 이 아래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실험들을 어떻게 선순환관계, 무엇과의? - 사회적 공공성, 국가시장이라고 하는 현존하는 지배적인 것과의 적대성에서 벗어나가지고 선순환관계에 놓을 것인가. 일종의 관리적 관점이 나타납니다. 코뮤니즘은 관리가 됩니다. regulation이 되는 거죠. 조절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런 실재적, 실재하는 코뮤니즘, 자본주의 속에서 실재하는 코뮤니즘, 미래에 도래할 것으로서의 코뮤니즘이 아니고 미래에 도래할 사회체제로서의 코뮤니즘이 아니고 우리의 자본주의적 삶 속에서 이미 내재하고 있는 이 잠재적 코뮤니즘 - 비록 여기에 포획이 되어가지고 아주 잘 보이지도 않고, 얼굴이 나타나는 순간에는 아주 일그러진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재하는 그것을 어떻게 액추얼라이즈 할 것인가하는 문제의식이 commun-ism이나 코문주의 속에서는 아직까지 정식화되지 않다라고 하는 거. 이게 지금 코뮤니즘 논쟁의 현 국면이 될 거 같아요.

▲사회주의

그러면 이제 사회주의라고 하는건 뭐냐, 국제사회주의라거나 다양한 사회주의 조류들이 있으니까, 사회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 - 사회주의는 바로 이 협력관계를 원래부터 자본주의적인 방식으로 국가를 사용하고 계획을 사용해가지고 생산력을 향상시킨다는 목표에 이 협력관계를 종속시키는 자본주의적 방식의 관리양식이죠, 사회주의라 하는 것은. 근데 이 공통된 것에 대한 자본주의적 관리양식으로서의 사회주의 - 이거는 20세기 전체가 사회주

의 시대였다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17년 이후에 동부에 쪽 확산되어 가고 29년 이후에 서구에 확산되어 갔고, 45년 이후에는 제3세계들 - 아시아, 북한이라거나 중국이라거나 아프리카에 몇몇 나라들, 라틴아메리카(라틴아메리카는 아시아적인 것하고 서구적인게 막 섞여있지만 말이죠) - 이런 데서 지구 전체의 사회주의가 사실은 실험되고 그 나름대로 공통된 것을 발전시키면서, 또 그것을 부르주아적 방식으로 포획하는 그러한 체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신자유주의적인 자본, 바로 이 자본의 코뮤니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초국적 금융자본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항으로서 본다면 아주 복고적인 것이죠. 신자유주의 자체가 바로 그러한 틀의 한계를 깨고 나온 것이잖아요. 그것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체험하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복고적인 것이라서 지금 여기 논의에서 보면 진전된 내용이 사실상 없는 거죠.

▲질문 3)

질문) 하나 질문있는데요. 그 코뮤니즘, 코문하고 권력관계에 대해 관련해가지고, 강의 중에 강의하시면서 권력과 활력이 대립하고 있다, 싸우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싸움의 과정 속에서 다중들이 역권력, 대항권력 - 윤수중 선생님은 대항권력이라고 얘기했고 선생님은 역권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그 다중들의 흐름 속에서 다양성과 혼돈성, 이런 부분변화들이 공통적인 견해를 만들어서 이게 운동적인 저절 하든, 혁명을 하든 아니면은 이 부분의 양태로 지금 코문을 만들든 한 부분일거고. 그러면 그 역권력이라고 하는 것은(어떤 권력이라는거 자체는) 일정정도의 통일된 힘을 만들기 위해서 쓰는 거 아닙니까, 일정부분. 그럼 글을 쓸 때는 그러면서 어떤 정도 그 어떤 대립의 점들을 만들어 나가는, 뭐랄까 힘들을 이제 그 일단 다양성과 분절 이런 것들을 같이 결합해가지고 하나의 힘으로 만드는데, 공통된 힘으로 만들기 위해서 쓰는 용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에 그 역권력이라는건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제가 쓴 거는 역권력이라는 것보다 역제국이었는데, 그때. counter-에 대한 설명을 한 것은, counter-Empire. 근데 앰파이어는 대문자로 되어있죠. 근데 이제 하이픈 빠진 counter는 대항이 좋은 번역이고, counter-Empire는 역으로 하는게 좋겠다. 이번 Multitude번역에서 이 원리를 적용을 했는데요, 항상 그랬던 건 아니고요. 우선 대항이라고 하는 것은 앰파이어에 대항하는데 대항의 결과가 동질적인 것으로 귀착될 때, 그래서 권력으로 치면 대항권력으로 될 때 - 사회주의가 바로 그랬잖아요. 대항을 했는데 똑같이 권력으로 귀착됐다는 것이죠. 권력으로 귀착될 때는 대항이 낮겠다. 그래서 거울효과로 나타나는 거죠. 상대방을 막 비판을 했는데 내가 상대방을 닮아버리는 결과이죠. 상대방을 뒤엎었는데 정신차려보니 자기가 상대방 자리에 서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때, 대항권력. 그럼 역이라고 하는 건 이런 대항성의 대칭성, 이 대칭성을 피하자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뒤집자는 거죠. 백규환 선생이 맨날 이렇게 ‘판을 확 뒤집자, 손바닥을 뒤집듯이 뒤집자’하는 그 뒤집음이죠. 이걸 하이픈을 붙여서 표현하는 카운터입니다. 그러면은 대항제국의 결과가 만약에 또 다른 제국으로 귀착된다면, 이 하이픈이 빠져야겠죠. 그냥 대항제국에 불과한 거죠. 근데 대항제국의 결과는 제국으로 귀착되지 않고, 제국과는 이질적인 것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보는 거죠. 나타나야 하고, 나타날 수 있고, 나타날 것이다. 비대칭적이고 이질적인 결과를 산출하는 대항. 그게 카운터 하이픈 counter-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제 활력이라고 하

는 것도 권력과 力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같잖아요. 활력이라고 해도, 우리는 힘이라고 하는 데서 벗어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존재하는 이 모든 것들이 힘이니까. 근데 그 힘들의 대치형태가 권력으로 된다고 하는 것. 폭력, 권력으로 된다고 하는 것은(폭력이랑 권력은 의미가 좀 다르죠) - 그것은 힘들의 자유로운 흐름을 일정한 격자 속에 집어넣는 거죠. 권력이라는 말 자체가 저울추 권(權)자인거처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중심이 그 균형을 잡아주는 거죠. 저울이라는 것도 가운데 균형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활력이라고 하는 건 그런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니까 만약 힘에만 단순화 시켜서 얘기해 보면, 힘들의 자유로운 역동이 가능해지는, 저기서 표현한걸 보면은 다양성과 혼돈성, 분기화 - 더 다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건 이 특이함(singularity)을 해치지 않는, 제한하지 않는 그러한 common이어야 되는 것이지, 그런 것들을 해치고 어떤 유형적 동일성, 형태적 동일성 이런 것들에 비추어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재단이 이루어진다면 그거는 인제 활력의 특성하고는 맞지가 않는 것이겠죠.